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9일 기도

- 기 간: 2026년 6월 17(수) ~ 25일(목)
- 방 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가톨릭기도서 109면/ 매일미사 184면)

- 지 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

6월 17일(수):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6월 18일(목): 상호 존중을 위하여

6월 19일(금):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6월 20일(토): 이산가족과 북향민을 위하여

6월 21일(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6월 22일(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6월 23일(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6월 24일(수):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6월 25일(목):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049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74 T 02-460-7695 E hwahai3217@cbck.kr

6월 17일(수)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첫째 날,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남북한의 대치와 갈등은 멈추지 않는 시계추처럼 이어지며 서로를 향한 적대와 불신을 키워 왔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념과 세대, 계층 간 갈등이 깊어지며 분단의 상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평화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다시 희망을 건네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2025.6.25. 참조).

이러한 초대에 응답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삶 안에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교회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대화의 길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귀 기울이며 이해하려는 노력, 곧 끈기 있고 용기 있는 대화야말로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는 길임을 강조합니다(「모든 형제들」, 198항 참조).

〈기 도〉

주님,

모든 피조물을 돌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에게서 찬미받으소서.

서로 사는 곳과 피부색, 언어와 문화, 종교와 이념이 달라도

배척하지 않고 다가가 귀 기울이며 대화하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통해 당신 자비의 얼굴을 드러내며,

마침내 모두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18일(목) 상호 존중을 위하여

둘째 날, 상호 존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우리는 오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형제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과 생각,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지닌 존재이지만,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일깨워 줍니다(「모든 형제들」, 8항 참조).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경계와 단절을 넘어 남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의 길을 열어 가야 함을 느낍니다. 작은 만남과 협력의 시도들이 이어질 때 오랜 불신의 벽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쌓여 가는 시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신뢰 속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는 길 위에 서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모든 이를 당신 모상으로 창조하신 주님,
저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대화와 신뢰 속에서 이 땅에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 안에서 형제자매애가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19일(금)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셋째 날,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선택과 만남 속에서 평화는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작은 불꽃처럼 위협받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그 불꽃을 지키고, 평화를 증언해 온 이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해야 함을 느낍니다. 폐허와 절망 속에서도 평화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분의 평화는 오늘도 당신의 증인들을 통해 세상의 문과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선을 선택하며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초대받고 있음을 전합니다 (레오 14세,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2026년] 참조).

이러한 초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루카 10,2)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도 평화를 일구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기도-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0일(토) 이산가족과 북향민을 위하여

넷째 날,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을 기억합니다. 특히 1980년대 초,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로 시간을 매우던 장면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큰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북향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이 더 이상 아픔 속에 머물지 않으며, 이념의 갈등을 넘어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져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깊은 그리움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또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북향민들을 지켜 주시고,

외로움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그들이 편견과 차별이 아닌 따뜻한 이웃의 환대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하소서.

아울러 당신의 자비로 남북의 문을 열어 주시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1일(일)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다섯째 날,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평화가 사람들이 함께 가꾸고 지켜 가는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사회와 정치 안에는 공격성과 대립의 논리가 퍼져 나갑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군사력과 억제력에 의존하며 힘으로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포와 무력 위에 세워진 관계는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레오 14세,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6년] 참조).

교회는 정치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선을 믿고 희망을 키우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참된 정치 생활은 진솔한 대화와 법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사람이 지닌 지성과 문화, 영성의 가능성을 믿고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때 새롭게 살아납니다(「모든 형제들」, 196항 참조).

〈기 도〉

평화의 주님,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된 봉사자로서 국민을 섬기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과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모든 민족이 생명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2일(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여섯째 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지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 이어진 분단으로 또 다른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 역시 분단과 한국 전쟁의 상처를 함께 겪으며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65년부터 6월 25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여 북녘 교회와 민족의 화해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통한 교류를 이어 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1999년에는 ‘북한선교위원회’를 ‘민족화해위원회’로 개편하여 화해와 일치를 위한 활동을 확대했고, 북향민을 돕는 사목과 연구·교육을 통해 교회 안팎에 평화의 목소리를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거리감이 남아 있습니다. 힘과 대립으로 얻은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로서 다시 희망을 품고, 북한 동포를 형제자매로 존중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교류와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2025년 한반도 분단 80년 특별 사목 서한 참조).

〈기 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굽어보시어

남과 북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존중하게 하소서.

불신과 대립을 넘어 서로 돕고 나누는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 주시어,

한반도에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3일(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일곱째 날,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예수님께서서는 무력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제자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요한 18,11)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이며, 힘과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과 사랑의 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평화의 길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강생은 참된 평화가 사랑과 돌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레오 14세,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26년], 참조).

〈기 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힘과 폭력이 아닌 비폭력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평생 사랑과 참된 평화의 길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풀며
평화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4일(수) 전쟁의 희생자를 위하여

여덟째 날, 전쟁의 희생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전쟁은 언제나 그 이전보다 더 나쁜 세상을 남깁니다. 전쟁은 인류의 실패이며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부수적 피해’로 잊혀진 민간인들, 전쟁 난민들,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과 어린 시절을 빼앗긴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전쟁이 남긴 폭력의 깊은 상처를 깨닫고 평화를 선택하게 됩니다(「모든 형제들」, 261항 참조).

전쟁이 남긴 상처는 목숨을 잃은 희생자만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을 잃고, 먹을 것과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한 세대가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전쟁으로 생긴 분열과 불신, 상처의 흔적은 아직도 우리 사회와 공동체 곳곳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폭력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열게 됩니다.

〈기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과 그로 인해
삶의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아픔 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5일(목)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아홉째 날,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상글〉

회심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랑과 평화의 길로 돌이키는 삶의 전환입니다. 평화를 향한 회심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종교는 고통받는 인류를 위하여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가 되는 유혹을 막고, 혈연과 민족을 넘어 모든 이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신앙이 정치적 대립이나 폭력을 정당화할 때, 하느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삶의 증언으로 이를 거부하며 기도와 영성, 대화와 만남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레오 14세,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26년] 참조).

평화는 거창한 일에서만 시작되지 않고, 미소와 친절의 눈길,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경청과 같은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작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프란치스코, 제5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25년] 참조).

〈기도〉

주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 미움과 적개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회심의 마음으로,

작은 친절과 용서의 실천을 통해

이 세상에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